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21)(12/8/2022)

제 4 권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

2 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이 성찬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남, 1-2 절

출 13:21-22 -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 1:22-23 -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 43:1 -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시 102:17 -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사 41:10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 <제자> 주님, 마치 병자가 자신을 치료해 줄 사람에게 나아가고, 주리고 목마른 자가 생명의 샘에 나아가며, 궁핍한 자가 하늘의 왕에게 나아가고,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아가고, 고독한 자가 자기를 부드럽게 위로해 줄 자에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듯이, 주의 선하심과 크신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나아오신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주께서 자기 자신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나서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영문으로 황송하게도 주께서 이 죄인에게 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이 종을 아시고, 이 종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시며,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찾아 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자애로우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주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의 선하심을 내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보여 주시며, 주의 겸비하심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명하셨고, 주님이 자신을 낮추어 이렇게 나를 극진히 대해 주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2. 오, 지극히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예수님,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함을 지니신 주의 거룩하신 몸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 주시니, 우리가 아무리 큰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서, 주님께 아무리 지극한 감사를 드리며 영원토록 찬송을 올려 드린다고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몸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내게 너무나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정도의 경외심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성찬에서 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보다, 내게 더 좋고 유익한 묵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높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서, 내 자신을 멸시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증거하셨다. 출 13:21-22 -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마 1:22-23 -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없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을 받게 하심으로 또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먼저 불러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사 43:1 -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히 3:1 -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불러 주시는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시다. 우리는 열두 제자를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 삭개오를 찾아 가시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 길로 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은 지금도 나의 삶의 현장, 각종 문제와 고난, 고통, 눈물, 절망의 현장 찾아 오셔서 나를 도와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제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시 102:17 -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렘 29:12 -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주님은 척박한 인생길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도 듣고 반응하신다. 출 6:5 -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시 5:1-3 -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탄식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아침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사 41:10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결코 낙심하고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때문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나의 기도와 탄식의 소리까지 들으심으로 고난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용혜원)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 무지한 자가 사랑에 빠져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상처만 남을 죄악된 어둠의 삶을 추구하며 즐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깊은 묵상을 통하여 내 영혼을 깨우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의 몇 토막 사랑에 도취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순간적 사랑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보석 중의 보석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빛으로 다가오게 하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2. 미국에 세워주신 한인교회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속한 남뉴잉글랜드 노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노회를 섬기는 분들과 모든 회원교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공동체로 더욱 성숙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